

우리의 소원

서 경 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요일~" 하고 여자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따라 이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 적이 있었다.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하여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막연히 통일은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소박한 생각만 가지고 그냥 따라 불렀다.

이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한편에서는, "무찌르자 오랑캐, 몇천 만이나~" 하며 빨갱이 공산당을 쳐부수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빨갱이의 수괴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빨갱이의 나라를 방문하여 관광을 즐기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듯 세상이 바뀌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려는 듯이 보이자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영어, 꿈에도 소원은 여영어, 영어여 빠알리 오라, 완전히 오너라."이다. 그야말로 '영어의 완전 정복'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

영어, 영어, 영어...

연초부터 한국이 시끄럽다.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소박한 꿈을 가진 민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도 마다않는 한국의 부모들을 허공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있다. 바로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교육 정책 때문이다.

모든 공부를 영어로 한단다.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배우고, 그래서 영어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영어로 꿈꾸고. 왜? 잘 살기 위해서란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하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예전에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빨갱이를 쳐부수자 할 때, 몇몇 어른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북한의 공산당은 얼굴이 빨간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 그런데 영어가 우리의 소원이 된 지금, 우리 주변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영어"를 부르짖고 있다.

철없는 아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왜 영어가 이토록 필요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어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어 몰입식 교육이 사회 문제가 되자, 그나마 마지못해 나선 몇몇 어른(?)들도 영어는 꼭 필요하지만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는 방법이 틀렸다고 외친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왜?

이제부터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지도층 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 같다. 사실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반대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들은 많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나서면, "당신은 이미 잘 하기 때문에 당신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비난을 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나서면, "당신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 내리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라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이미, 영어는 잘해야 하는 것이고 영어를 잘 해야만 출세를 하고 지도층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매일 자신과 자식들을 다그치고 있기 때문에 나설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철학 없이 막연히 통일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소박한 생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따라 붙렀듯이,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 없이 영어만 잘 하면 출세를 하여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영어"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생존(?)으로서의 영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는 꼭 필요하다. 왜? 영어가 성적의 척도이니까. 영어 성적이 대학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니까. 영어 성적이 취직을 하는데 기본 조건이니까. 그리고는?

지도층 인사들은 영어의 성적이 국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철학 없이 막연히 통일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소박한 생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딱 붙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 없이 영어만 잘 하면 출세를 하여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영어"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다. 영어 성적이 좋으면 국제 사회에 나가 연설도 잘 하고 세미나도 능숙하게 이끌어 가고 협상도 우월적으로 타결해 낼 줄로 착각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영어 성적은 별 쓸모가 없었다. 왜? 토폴을 만점 가까이 받은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병어리 시늉을 내며 웃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빨리 바꾼 것이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이다. 초등학교에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등장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듣기 시험이 등장했다.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이 강화되니 부모들은 나의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원으로 보냈다. 다른 아이의 부모도 나의 아이를 누를 수 있도록 학원으로 보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을 누르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점수 올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한국인의 성질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 학생이 학원에 가서 점수 올리는 기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 쓸데 없는 문제를 시험지에 가득 채운다. 아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영어가 나올 수가 없다.

지도층 인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었거나 침묵으로 동의한 한국의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다면서 자신들의 아이들부터 미국(절대로 영어권 나라가 아니다)으로 보냈다. 교실에서 좀 산다싶은 아이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방학이 되면 사라졌던 아이들이 나타나 혀꼬부라진 영어를 씨부렁 댄다.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을 뺨튀겨 자랑한다.

교실에 남아 있던 아이들이 부모들을 조른다. 예전에 뺨뺨한 충천연색 칼라 표지의 전과나 수련장이 나오면 저것만 있으면 백점 맞을 수 있다고 조르듯, 손바닥만한 소니 워크맨 있으면 영어를 줄줄 할 거라고 조르듯,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모들을 잡아 흔든다.

아이들이 조르지 않아도 부모들은 기꺼이 기러기가 된다. 힘 있어 훨훨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기러기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힘이 없어 파닥파닥거리는 기러기는 호주나 인도, 뉴질랜드로 새끼들을 날려 보낸다. 날개가 있어 날을 수 있는 기러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능력 없어 날 수 없는 부모들은 답장에 갇힌 병든 닭 신세다.

우리의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부모들을 위해 원어민 영어 교육이라는 자비를 베푼다. 능력, 학력, 철학이 검증 안 된 소위 원어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영어로 말하는 능력 하나만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영어 못하는 선생님은 생각조차 못하는 무능력, 무뇌아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원어민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가르치니 한국에 남은 아이들도 조금씩 혀꼬부라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도층 인사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아이들의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환희에 찬 탄성도 잠시, 지도층 인사들은 의문에 빠졌다. 왜 국제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 걸까? 결론은 미국에 있는 자신들의 아이들만 보아도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무능력 선생님들이 영어로 이해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쓸데없는(?) 한국말로 가르치니 서로간 이해가 안 되어 실력을 쌓을 수가 없고 실력이 떨어져 국제 경쟁력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식 교육' 이란다.

영어로 먹고 살 사람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애기가 장황하게 길어졌다. 하지만, 나의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애기를 짧게 하고 말 것인가? 한국을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안으로 멸절된 사람들을 밀어 넣고 있는데 어찌 입 다물고 있을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필자는 매일 영어를 말하고 쓰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이러니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영어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비엔나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일년에 백여일을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시설을 방문하여 검증함으로써 핵물질과 핵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 필자에게 영어는 생각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지극히 제한된 소통의 수단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영어로 생각을 전달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왜 영어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냐고 묻고 싶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영어를 말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번이나 영어로 말하는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을 하냐고 묻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과 우리 아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정말 답답하다.

우리는 확률을 배운다. 신문 방송에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외국의 예를 들 때 퍼센트를 얘기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영어로 먹고 살 사람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십 퍼센트는 될까? 넉넉히 인정을 하여 십 퍼센트가 영어로 먹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구십 퍼센트는 왜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십 퍼센트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매일 영어를 말하고 쓰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이러니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영어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비엔나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일년에 백여일을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시설을 방문하여 검증함으로써 핵물질과 핵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

필자에게 영어는 생각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지극히 제한된 소통의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시장의 채소 장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며 자동차 공장의 조립공이 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 직원이 왜 영어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왜 영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영어만 잘하면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될까?

필자는 영어를 잘 못한다. 매일 영어를 하면서 내가 영어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영어에 대해 아쉬움보다는 한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 오십대 부모들이 영어에 대해 한을 품고 있는 듯하다. 영어를 잘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직급,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원수 같은 영어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검증 안 된 한을 품고 있는 듯하다.

아쉬움은 참고 있을 수가 있지만 한은 잊을 수가 없어 가슴에 품는다. 한국의 부모들은 가슴에 품은 한을 풀기 위해 자식들을 다그친다. 왜? 영어를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출세도 잘 되어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이다.

영어만 잘하면 세상이 바뀔까?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될까? 뿐만 아니라 영어로 모든 과목을 배우면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노벨상도 쉽게 탈 수 있게 될까?

필자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예를 들겠다. 필자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 역사, 체육 등등의 선생님들이 있다. 이 선생님들의 모두는 영어가 모국어이며 미국이나 영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다(물론 독일어나 스페인어 등 외국어는 다르다). 일부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중학교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친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선생님들이 삼 년 동안 영어 연수를 이수한 후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 등의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일이다(외국 학교 교육이 한국 학교 교육보다 우수하니 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의 영어 교육 심도 있는 토론 필요

우리는 말을 하고 들으면서 상대방의 유식함과 무식함을 구분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의 말은 경박하고 거칠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말은 단순하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모든 배경을 나타내 준다.

지식이 받쳐주지 못하는 영어는 그냥 무식한 말을 지껄이는 수단일 뿐이다. 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한다는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어만 할 줄 알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를 한국 사람은 없다. 또한 지구상 많은 나라에서 영어만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은 나라를 다녀본 필자의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다.

그리고 영어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따로 공부를 하여도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는 조기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산사자음미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과목은 영어 외에도 많다.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그 많던 우리의 어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아이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벌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 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 엄마들이 심심찮게 부정한 짓을 저질러 쓸쓸하게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들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고, 기러기 아빠들이 한국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돈을 보내 주면 아이와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엄마들은 그곳에서 돈을 펄펄 쓰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남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지극히 일부가 부정을 저지르고 호의호식을 하며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 엄마도 한국 교육 정책의 피해자이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아이들을 위해 동분서주, 좌충우돌하는 ‘기러기 엄마’ 들이 더 많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모두 성공하여야 하는데 성공할 확률은 한 자리 수에서도 낮은 한 자리 수 정도라니 한국의 공교육과 영어 교육을 정말로 심각히 생각해 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

지식이 받쳐주지 못하는 영어는 그냥 무식한 말을 지껄이는 수단일 뿐이다. 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한다는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어만 할 줄 알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를 한국 사람은 없다. 또한 지구상 많은 나라에서 영어만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은 나라를 다녀본 필자의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